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전자칠판 대블릿 노트북 AP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능력있고 소통되는 믿을만한 변호사
법무법인 우 신
민사/형사/가사 무료법률상담 환영
사무실 : 032-861-2222
휴대전화 : 010-4380-5607

2017년 5월 24일(수) 제 276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동방스포츠클럽 대축제 개최 6면

인천동방중학교(교장 장근수)는 5월 19일 전교생이 함께하는 '동방스포츠클럽 대축제'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근수 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며, 즐거움 속에서도 배려와 질서가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동방인으로 성장하는 마당이 되기를…

광주하남초, '논두레 체험' 10면

20일 광산구 산정동에 소재한 산정제 저수지 인근 논에서 방금 전 논달리기 경주를 끝낸 학생들의 손모심기(모내기)가 시작됐다. 하남초등학교 학생들인 이들은 학부모·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두레' 프로그램에 참여해 풍작을 기원하는 풍물단의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새참 먹기…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 실현 16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올해 전남교육은 '미래 핵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서·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최선을…

인천대학교 동문 지역발전 구심점

사)인천사회복지진흥재단 창립총회 개최

국립인천대학교 동문 및 명예동문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인천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학생구내식당에서는 사단법인 인천사회복지진흥재단 창립총회(발기인 대표 이장헌)가 열렸다.

(사)인천사회복지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의 사용승인을 완료한 뒤 인천대학교 동문회관 설립의 기초로서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장헌 인천대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50년 역사의 인천대학교 16만 졸업생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인천대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인천사회복지진흥재단의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인천대 동문은 물론 명예동문에 추대되신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천대학교의 동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행 하나도 곧 인천사회복지재단과 인천대학교 동문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주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인천대학교는 현재 인천송도캠퍼스와 제물포캠퍼스로 나뉘어 있으며 송도캠퍼스는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제물포캠퍼스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 대학으로 각각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인천사회복지재단은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 인천대동문회관을 설립과 학교시설을 위임 수탁받아 장학사업, 청년고용창출사업, 문화예술복지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사)인천사회복지재단 창립총회는 이장헌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의장으로 새로운 임원 선출과 정관 승인 및 수정안 통과를 의결하며 마무리 됐다.

인용섭 기자 ays@

4차 산업혁명 선도 'ICT 미래인재포럼'

24~27일 UCLA 데니스 홍 강연 등… '월드IT쇼'와 함께 열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대학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성과 확산·공유를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란 주제로 'ICT 미래인재포럼 2017'을 개최한다. ICT 미래인재포럼은 ▲대학ICT연구센터(ITRC) 포럼 ▲창의ICT융합인재포럼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주요 연구성과 전시·홍보 및 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ITRC 포럼'은 대학ICT연구센터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계와 ITRC 참여 학생의 채용·연계를 위해 연구성과물 전시 및 리쿠르팅 페어를 개최한다.

전시관은 전국 29개 대학 총 38개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ICT와 생활을 접목시켜 6대 분야 테마 중심으로 구성됐다. 리쿠르팅 페어는 40여개의 ICT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채용 관계자와 대학ICT연구센터 참여 학생 간 직접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기회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ICT명품인재양성 참여 학생의 특록 뛰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연구 성과 발표 및 창의교육과 미래기술연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래IT융합연구원(포스텍-한국뉴욕주립대)과 글로벌융합기술원(연세대) 학생들의 다학제적 융합연구 및 자기 주도의 공학적 모험에서 나온 성과(20건)들을 소개한다.

또한,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수행 대학별 '창의융합교육', '미래기술' 등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 및 미래 기술 연구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ICT분야 각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양성을 주제로 하는 초청강연 또한 다양하다.

스카이레이크 진대제 대표의 '창의적 인재'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미래사회로봇'을 각각 발표한다.

24일 개회식에서는 ICT분야 연구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센터와 이화여대 박사과정 권민혜 씨 등 7명이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ICT분야의 청년 인재들이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체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로 발돋움 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신대, 고교 대상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인기

5, 6월에도 5개 고교 1천300여 명 참여 예정

전공별 학과체험 등 통해 진로 설정 도움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광주·전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은 ▲캠퍼스투어와 함께 진행되는 미니 입학설명회 ▲전공체험, 전공특강, 전공찾기, 대학탐방 등이 이루어지는 진로·진학 체험 ▲공공기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방문하는 외부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도착하면 캠퍼스투어를 통해 캠퍼스를 둘러보고, 미니 입학설명회에서는 동신대학교 홍보동영상 시청과 더불어 2018학년도 입학설명을 통해 입학정보를 제공한다.

미니입학설명회가 끝나면 학생들은 신청 학과로 이동해 전공별 학과체험, 특강,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학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 및 특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음으로써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홍보관이나 동신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암리고분전시관, 국립나주박물관 등 문화자원 견학도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체험위주로 구성되었으며,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으로 체험·특강을 운영하기도 한다.

올해 동신대학교 진로 진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3 학생은 4월7일 전남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광덕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광주동신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 1천96명에 달한다.

5월과 6월에는 고려고등학교와 수완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완도고등학교 등 5개 학교 1천300여 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중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2학기에 운영할 예정).

동신대 정영옥 입학처장은 "2018학년도 수시 면접 폐지에 대비해 수험생들에게 동신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n-campus)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서 "각 학과에서 준비한 특강과 알찬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덕원 기자 sdw@